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음 6월 20일) 제2336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아·태 마스터스 유치 추진력 확보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 통과 정부 지원 확정… 전북도, "경제효과·관광자원 개발 기회 삼을 것"

전북도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의 마지막 퍼즐로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으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APMG(아태마스터스대회)개막식이 열리는 말레이시아 페낭 City stadium에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북유치 홍보에 나선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행.

전북도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의 마지막 퍼즐로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으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를 국가차원에서 유치하기로 심의·결정해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5개 종목에 70개국 1만3000여명(동반자 2.3명별도/선수 1인)의 전직선수, 클럽선수, 개인 등이 참가해 '체육+관광'을 즐기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규모면에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생활체육분야의 국제종합경기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치하는 대회이다.

이미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간접편익을 고려한 B/C비율이 1.0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기재부 타당성조사에서도 경기장 신축이 없이 기존 시설을 100% 활용으로 경제적인 대회, 참가자가 체재비, 등록비를 지불하며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즐기는 실속 있는 대회, 생활체육 장려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고령화시대에 맞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로 인정받아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북유치에 한발 더 다가선 셈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4년마다 열리는 대륙별 대회로 오는 8월 공식적으로 유치계획서를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IMGA)에 제출하면 국내실사(9~10월)를 거쳐 올 11월 IMGA이사회(14명)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대만, 몽고 등이 2022년 대회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던 태국이 차차기 대회인 2026년 제3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로 방향을 선회하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

전북도는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현안 사업으로 자체 발굴하고 내부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타 도시와의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치를 선언했었다.

도는 또한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제1회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대회 개막식에 참석, 대회 운영현황과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유치활동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개최지 결정권을 지닌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초청해 전북도의 경기장과 관광인프라를 소개, "현재 여건으로도 개최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2022 아·태마스터스가 어떤 대회인지에서부터 생활체육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 국내 홍보활동도 꾸준히 이어오면서 유치 붐을 조성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선택과 집중적인 아·태마스터스 유치활동에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절차에서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확정에 이어 최종적으로 이날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통과에 이르게 됐다.

이강오 도 대외협력국장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활동이 정부지원 심의를 통과하면서 국가행사로서 탄력을 받게 됐다"며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 모두를 위한 생활스포츠 활성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사전점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기회인 만큼 유치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반공법 등 위반 혐의 납북어부 6명 재심서 '무죄'

지난 1968년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돌아온 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6명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1~3년의 징역살이를 한 남정길(69)씨 등 납북어부 6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납북 어부 3600여명 가운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1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건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석훈 기자

매일 INDEX

2면 - 도, 일본 수출규제 총력 대응
4면 - 일본 수출보복 규탄 목소리 '확산'
6면 - 전북 여성경제인협 창립 20주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추가 구축

익산시,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 등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추가로 구축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등 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을 건립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는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중계·공급할 수 있는 '농식품 원재로 중계·공급센터'를 건립한다.

올해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확보됐으며 지난 3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내년에 시설·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원료정보를 연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22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176억 원을 투입해 일반·특수제형실과 제형품질검사실, 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원재료 공급센터와 마찬가지로 올해 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편성됐으며 지난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센터는 행정절차와 시험가동, 인증절차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여기에 청년 식품창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식품클러스터 내에 부족한 청년식품창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신규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289억 원이 투입돼 5층 규모의 창업지원Lab과 임대형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지원 시설 구축을 통해 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북 금융중심지 핵심 도 재정사업 신속 추진

금융센터, 총 사업비 1158억원 투입 2021년 착공

전북 금융중심지의 핵심이자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북금융센터'가 결국 전북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도 일자리경제국은 지난 19일 "금융중심지 지정 및 농생명 특화 금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인프라 공간의 시급성 등을 반영해 금융센터를 전북개발공사 보조지원 방식으로 추진키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재정사업 결정은 민간금융기관을 집적화시키고자 하는 금융센터의 성격상 공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직접개발이 어렵다는 감사원 의견에 따라, 업무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사업추진력 확보를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했다.

금융센터는 총 사업비 1158억원 정도로 금융타운 부지 중 일부 인 대지면적 약 1만2000㎡에 연면적 약 3만7000㎡ 지하2층, 지상11층 정도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주요시설로는 금융기관의 사무 공간, 업무편의시설, 중소전문회의실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2021년도 상반기 공사착공,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급한 금융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금융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해 이후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결정은 민간투자자의 투자여건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전북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금융 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형 금융도시조성을 위해서 조속한 금융센터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금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